

노동정책연구  
2008. 제8권 제3호 pp.17~38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

엄동욱\*\*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2005년) 학술대회용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취업실태를 비교하고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50세 이상 75세 미만 중고령자인 총 7,003명이며, 인적 특성, 건강상태, 노동시장 특성,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구자산 및 부채, 일자리 직업정보를 취업결정요인으로 주목하여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모형과 취업형태에 대한 다항로짓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의 연구가 주로 취업-미취업의 기준에 따른 취업결정요인 분석에 치중한 결과, 이질적인 속성을 가진 취업자 집단, 즉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 결과와 유사하지만, 개별 요인별 추정계수의 방향이나 크기가 서로 달라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취업자로 통합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임금근로자와 고용주/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 각각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핵심용어 : 중고령자, 국민노후보장패널, 취업확률, 이항 및 다항로짓 모형

논문접수일: 2008년 7월 1일, 심사의뢰일: 2008년 7월 3일, 심사완료일: 2008년 9월 10일

\* 본고는 필자가 제1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한국노동연구원 신현구 책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물론 남겨진 오류와 문제점은 필자가 고민하고 해결할 몫이다.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edwmidas@seri.org)

## I. 문제 제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들은 노후준비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반국민에게 노후준비를 위해 실현가능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일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연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소나마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중고령자들이 노후준비나 노후생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중고령자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고령자의 노후생활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중고령자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 KReIS)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 KLoSA)와 더불어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에 초점을 맞춘 패널조사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sup>1)</sup> 이에 본 연구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중고령자의 실태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나라에

1)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최종 자료는 2007년에 조사한 결과와 종단클리닝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과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중고령자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장지연 2003). 사실 유럽국가에서는 조기퇴직의 원인으로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지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일천하고 아직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취업 이외의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에 기초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가 취업 여부(취업-미취업)를 기준으로 취업을 결정짓는 요인에만 주목해 온 반면, 본 연구는 취업자의 인적자본 속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질적인 속성을 갖는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sup> 이들간 차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이지만 향후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은퇴 과정을 추적한 박경숙(2003, 2006)의 연구에서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주요 변수와 실증분석 모형은 성지미·안주엽(2006)과 장지연·신현구(2008)의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들의 연구가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기본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성지미·안주엽(2006)은 2003년에 실시된 제6차 한국노동패널 및 중고령자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중장년층(30세 이상 50세 미만)과 중고령층(50세 이상 75세 미만 준고령자·고령자 집단)을 비교 분석하고 있고, 취업결정요인으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가구소득원, 자산(부채), 과거 직업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로짓 및 다항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으로서 가구소득원의 형태, 자산(또는 부채) 규모, 그리고 이전 일자리(45세 기준)의 특성이 현재의 취업결정에

2)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경우 편의상 본문에서는 주로 자영업자로 기술한다. 표와 그림에서는 고용주/자영업으로 명기한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장지연·신현구(2008)는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sup>3)</sup> 이들의 연구는 성지미·안주엽(2006)과 달리 국가간 비교를 통해 제도의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중고령자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수준의 복지제도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들은 연령, 교육, 건강, 소득의 4가지 요인이 중고령자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경은 선진국과 달리 열악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소위 ‘은퇴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retirement)’와 같은 현상들이 일반화되기에 아직 이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중고령자의 취업 실태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연구 모형을 설정한 후 실증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정의하고 기초통계를 통해 표본의 특성을 살펴본다. 이어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이항로짓 및 다항로짓 모형을 사용하였고, 이때 전체 중고령자를 취업 여부(취업·미취업)로 구분하거나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다.<sup>4)</sup>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 검토사항을 제시한다.

## Ⅱ. 중고령자 취업실태

### 1. 분석 자료

본 연구가 주로 활용하는 분석 대상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제1차 국민

3)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제1차 기본조사 자료(2006년)이고, 미국은 건강과 은퇴패널조사(Health and Retirement Survey : HRS)의 2004년 자료이며, 독일과 스웨덴은 유럽고령화연구패널조사(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의 2004년도 자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장지연·신현구(2008), pp.64~70 참조.

4) 실증분석에는 Stata 10/SE를 사용하였다.

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용 자료이다. 이 자료는 2005년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 가구원을 가진 전국의 5,000여 가구와 그 가구에 속하는 만 50세 이상 개인 8,600여 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응답자들의 가구와 인적자본 특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김시원 외 2006). 본 연구는 중고령자 범위를 50세 이상 75세 미만의 준고령자·고령자로 제한하였다.

## 2. 중고령자의 취업실태

<표 1>은 성별·연령대별 중고령자의 취업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총 6,943명 중 미취업자는 52.0%, 취업자는 48.0%로 고연령일수록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전체 분석 대상 중 임금근로자는 19.5%인데 주로 남성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고연령일수록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든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대상 중 약 20% 수준으로 연령대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sup>5)</sup>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그 비중은 10% 미만인데,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주로 해당된다. 이는 [그림 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1> 성별·연령대별 취업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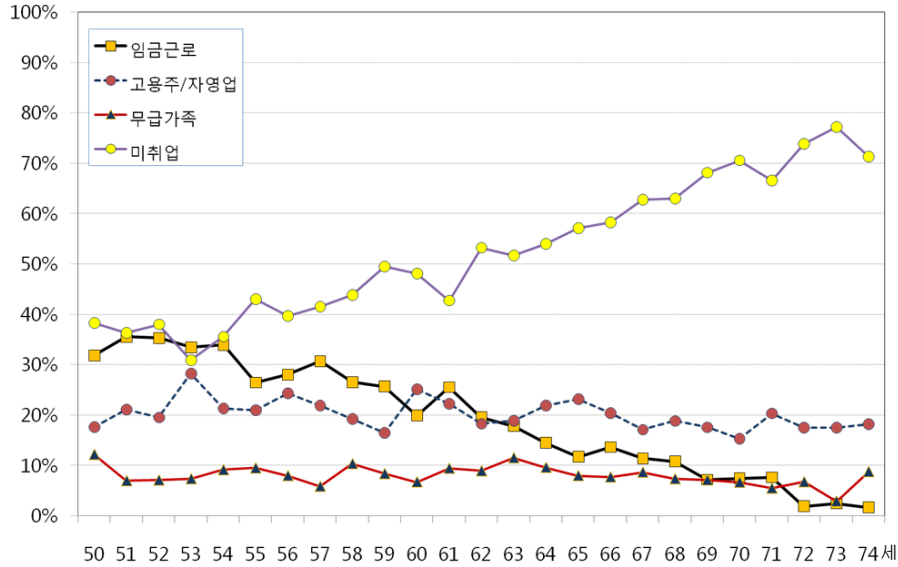
(단위: 명, %)

	전 체					남 성					여 성				
	전체	취업				전체	취업				전체	취업			
		미 취업	임금 근로	고용 주/자영업	무급 가족 종사		미 취업	임금 근로	고용 주/자영업	무급 가족 종사		미 취업	임금 근로	고용 주/자영업	무급 가족 종사
전 체	6,943	52.0	19.5	20.3	8.2	3,060	37.1	28.6	33.5	0.8	3,883	63.8	12.4	9.9	13.9
50~54세	1,276	35.5	34.1	22.0	8.4	554	13.9	49.5	35.2	1.4	722	52.1	22.3	11.9	13.7
55~59세	1,456	43.3	27.5	20.7	8.4	632	21.5	41.8	36.2	0.5	824	60.1	16.6	8.7	14.6
60~64세	1,558	50.3	19.1	21.1	9.4	714	37.7	27.3	33.9	1.1	844	61.0	12.2	10.3	16.5
65~69세	1,556	61.6	11.1	19.5	7.8	699	51.2	15.9	32.6	0.3	857	70.1	7.1	8.8	14.0
70~74세	1,097	71.6	4.6	17.7	6.1	461	64.0	6.5	28.4	1.1	636	77.2	3.1	9.9	9.7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5) 이와 같이 자영업 노동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연령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고령자에게 대안적인 취업형태로 제시되고 있다(장지연 2003).

(그림 1) 연령별 취업실태



### Ⅲ.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 1. 연구 모형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분석에는 보통 종속변수가 0과 1의 값을 갖는 경우 즉 이항분포(binomial distribution)를 이루고 있는 경우 로짓모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의 형태를 이항분포로 가정하는 경우 이항로짓(binomial logit) 모형,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범주 값을 갖는 다항분포(multinomial distribution)인 경우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모형을 사용한다.<sup>6)</sup> 본 연구

6) 이항로짓과 다항로짓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성우 외(2005)와 Long & Freese(2006)를 참조. 일반적으로 다항로짓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 IIA(Independence and Irrelevance of Alternative) 가정을 충족해야 한다. 즉 선택확률이 일정하다는 가정인데 본 연구의 자료는 취업 여부 및 취업자의 구성에 있어 상호 배타적인 응답 자료로 구성되어 IIA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술대회에서 논평을 해주신 신현구 책임연구원은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경우를 고려할 때 선택확률이 상호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에서는 이항로짓 모형에서 종속변수가 미취업상태(1-p)에 대한 취업상태(p)의 로짓(log odds)이며, 추정계수들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갖는 확률효과를 의미한다. 한편 다항로짓 모형은 종속변수를 미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는 경우 사용하는데, 추정 결과를 해석할 때 참조집단(미취업자)에 대비하여 각 취업형태를 가진 집단의 확률의 비율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sup>7)</sup>

구체적인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X\beta + \epsilon \tag{1}$$

여기서  $y^*$ 는 취업 여부(더미변수로서 취업자인 경우 1, 아닌 경우 0)를 나타내며, 설명변수  $X$ 는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로서 인적속성, 건강상태, 노동시장 특성,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구자산 및 부채, 그리고 일자리 특성 등을 포함한다.  $\beta$ 는 설명변수의 추정계수가 되며,  $\epsilon$ 은 오차항으로 *i.i.d.*라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적속성변수로서 가구주 더미변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가구주 여부를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중고령자가 가구주일 경우 가구생계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취업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포함시켰다. 성별 더미변수는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취한다. 연령은 조사 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교육연수는 학력에 대한 응답결과를 연속변수로 전환한 것이다.<sup>8)</sup> 한편 가구원 중에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

는 지적을 해주셨으며 소위 **nested logit model**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로운 자료에 대한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7) 보다 정확하게는 계수 추정치를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산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추정 계수치의 통계적 유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변수들의 유의성을 먼저 살펴본 뒤 구체적인 효과는 한계효과를 산출하여 분석하고 있다.

8) 교육연수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한국노동패널과 달리 각 학력계층별로 중퇴와 졸업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교육연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초대졸과 대졸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된 교육연수가 측정 오류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학년 가구원이 존재할 경우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영유아기(0~4세)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의 더미변수, 그리고 학령기(5~9세) 가구원이 존재하는 경우의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느냐에 따라 취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무배우 여성, 무배우 남성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sup>9)</sup>

다음 중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변수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에서는 건강상태를 육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를 구분하여 응답토록 하고 있는데, 5점 척도 방식으로 매우 좋지 않다(1점)에서 매우 좋다(5점)까지 측정을 하고 있다.<sup>10)</sup> 본 연구에서는 보통이다(3점)를 기준으로 좋거나 매우 좋은 경우를 양호상태로 구분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그리고 매우 나쁜 경우 각각에 대해 더미변수로 구분하였다. 또한 질환, 장애 여부가 취업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더미변수(질환, 장애가 있는 경우 1, 아니면 0)로 추가하였다.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는 지역실업률을 활용하였다. 이 변수는 조사기준 시점인 2005년 8월에 해당되는 2005년 3/4분기의 지역별·연령별 실업률을 통계청 KOSIS 시스템에서 추출하였고, 응답자의 연령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맞추어 해당 값을 부여하였다.

다음 가구소득은 가구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금융자산소득, 부동산소득, 사업보장급여, 개인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만원/월 단위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연간 소득으로 응답한 금액을 12로 나눈 값이 된다. 또한 기존 연구와 달리 가구지출도 포함하였는데, 가구소득 규모와 더불어 가구지출 규모도 동시에 고려할 때 정확한 취업결정요인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가구지출은 가계총지출, 이전지출, 저축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소득과 같이 만원/월 단위로 재산출하였다. 가구자산 및 부채는 금융자산 총액, 기타자산 총액, 그리고 총 부채잔액으로 만원 단위로 집계된 것이다. 본 연

9)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결혼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무배우 여성과 남성이 미혼인지 기혼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 동 조사의 원자료에는 1인 가구가 924명이 있는데, 배우자가 없다는 정보만으로는 이들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기혼 여부에 따라 추정 결과의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조사에서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10) 육체적 건강상태(원자료 변수명은 p01p010)와 심리적 건강상태(p01p011)의 상관계수는 0.5846로 다소 높은 편이다. 따라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구에서는 가구소득, 지출 및 자산/부채와 관련된 변수들에서 해당 변수가 해당되지 않거나 응답 거절, 모름, 무응답에 대해서는 모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는 추후 실증분석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무응답으로 인해 표본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추정상 오류가 일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11)</sup>

마지막으로 일자리 특성을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경우 한국노동패널과 달리 취업자의 경우 직전 일자리 정보를, 미취업자의 경우 마지막 일자리 정보를 묻고 있어 각각 이 정보의 직업특성을 더미변수로 만들어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sup>12)</sup> 가령 관리임원직인 경우 occ0 변수는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일자리(직업) 변수의 기준 범주는 사무직(occ3)이다.

## 2. 기초분석

<표 2>는 기초통계로서 표본의 규모를 제외한 모든 값은 평균치를 의미한다. 미취업자 중 가구주는 불과 33%이고, 가구주는 주로 임금근로자와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더미변수를 보면 미취업자에서 여성이 많이 발견되며, 무급가족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58세이고 교육연수는 가장 높은 9.25년이다. 미취업자가 가장 연령이 높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은 평균 139.75만 원이며,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평균 122.30만 원이다. 영유아기, 학령기 가구원의 존재는 그 비중이 적어 취업형태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건강상태는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양호한 실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육

11) 이와 같은 실증 분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공한 무응답 대체자료(imputed data)를 사용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기 못했고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12) 성지미·안주엽(2006)의 경우, 만 45세 때의 일자리 정보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일자리가 현재 취업형태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와 일치하나, 왜 만 45세의 근로경험에 주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다만, 한국노동패널 부가조사시 제공된 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량

변수명	변수 정의	전체	미취업	취업	임금근로	고용/자영	무급가족
	표본수(명)	7,003	3,613	3,330	1,356	1,408	566
REL	가구주더미변수(가구주=1)	0.52	0.33	0.73	0.83	0.91	0.05
FEMALE	성별더미변수(여성=1)	0.56	0.69	0.42	0.36	0.27	0.95
AGE	연령(세)	61.80	63.41	60.09	58.26	61.36	61.32
SCH	교육연수(연)	7.85	7.73	7.96	9.25	7.76	5.34
CHILD4	영유아기(0~4세) 가구원(=1)	0.04	0.05	0.02	0.03	0.02	0.01
CHILD9	학령기(5~9세) 가구원(=1)	0.05	0.07	0.03	0.03	0.03	0.02
NSPOF	무배우 여성(=1)	0.17	0.22	0.12	0.12	0.14	0.03
NSPOM	무배우 남성(=1)	0.03	0.03	0.02	0.04	0.02	0.00
HEALTHG	육체적 건강상태 양호	0.29	0.23	0.36	0.43	0.36	0.23
HEALTHB	육체적 건강상태 나쁜 편	0.34	0.37	0.32	0.27	0.33	0.41
HEALTHW	육체적 건강상태 매우 나쁜 편	0.13	0.19	0.06	0.03	0.07	0.12
PHEALTHG	심리적 건강상태 양호	0.40	0.34	0.46	0.48	0.47	0.37
PHEALTHB	심리적 건강상태 나쁜 편	0.24	0.27	0.21	0.18	0.21	0.26
PHEALTHW	심리적 건강상태 매우 나쁜 편	0.05	0.07	0.03	0.02	0.03	0.03
DISABILITY	질환/장애 존재(=1)	0.46	0.55	0.37	0.31	0.39	0.42
URATE	지역 실업률(%)	2.03	2.08	1.97	2.46	1.72	1.42
INCFAM	가구소득(만원/월)	216.24	204.47	228.73	264.45	219.94	163.51
NLABINC	가구소득(본인 근로소득 제외, 만원/월)	165.28	204.47	121.15	127.67	97.70	163.51
INCSP0	배우자근로소득(만원/월)	38.59	38.93	38.38	34.87	16.87	100.30
INCSAVS	금융자산소득(만원/월)	4.39	6.37	2.23	2.64	1.92	2.02
INCRENT	부동산소득(만원/월)	12.33	15.21	9.39	7.42	12.39	6.64
INCSOCI	사회보장급여(만원/월)	8.33	11.21	5.34	5.46	6.80	1.41
INCRETA	개인연금소득(만원/월)	0.29	0.24	0.35	0.29	0.51	0.09
INCTRAN	사적이전소득(만원/월)	20.24	27.37	12.57	12.46	13.32	10.95
INCETC	기타소득(만원/월)	10.52	13.20	7.68	11.51	6.42	1.64
EXPENS	가계총지출(만원/월)	142.97	131.43	155.58	164.33	156.98	131.14
EXPTRAN	이전지출(만원/월)	18.03	10.91	25.73	28.91	26.22	16.91
SAVINGS	저축액(만원/월)	14.68	11.83	17.72	20.74	16.40	13.80
ASSETFIN	금융자산 총액(만원)	1,379.36	1,464.74	1,297.59	1,408.40	1,232.18	1,194.83
ASSETETC	기타자산 총액(만원)	315.90	277.64	355.25	356.16	398.15	246.34
DEBTFIN	총부채잔액(만원)	2,342.50	2,178.08	2,540.99	2,234.10	3,055.07	1,997.37
OCC0	관리임원직(=1)	0.047	0.051	0.045	0.059	0.045	0.011
OCC1	전문가(=1)	0.012	0.015	0.008	0.011	0.009	0.000
OCC2	기술공 및 준전문가(=1)	0.018	0.017	0.019	0.021	0.023	0.004
OCC3	사무직(=1)(기준)	0.051	0.046	0.059	0.073	0.063	0.014
OCC4	서비스직(=1)	0.045	0.056	0.034	0.044	0.031	0.016
OCC5	판매직(=1)	0.079	0.091	0.067	0.070	0.074	0.044
OCC6	농림어업숙련직(=1)	0.083	0.080	0.088	0.088	0.107	0.042
OCC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1)	0.071	0.061	0.084	0.116	0.080	0.018
OCC8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1)	0.031	0.023	0.041	0.037	0.060	0.002
OCC9	단순노무직(=1)	0.181	0.227	0.135	0.226	0.079	0.058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체적 건강상태나 심리적 건강상태 모두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며, 질환/장애의 존재에서도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육체적 건강상태나 심리적 건강상태가 나쁜 편이라는 응답이 많다.

가구소득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 264만 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 미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이다. 배우자 근로소득의 경우 전체 평균 39만여 원 수준인데,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00만 원으로 무급가족종사자의 속성상 배우자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소득은 취업자에 비해 미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사회보장급여도 그러하다. 한편 개인연금소득은 다른 가구소득에 비해 비중이 미미하지만, 자영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적이전소득은 미취업자가 취업자보다 약 2배 정도 많은데 이는 일정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서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지출 수준을 보면, 가계총지출은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으며, 자영업자, 미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이다. 그에 더하여 이전지출의 규모를 보면 또한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고 가구소득의 약 10% 정도에 이른다. 한편 저축액도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다. 가구자산 및 부채는 금융자산의 경우 미취업자가 가장 많지만 기타자산까지 포함하면 자산 규모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이다. 부채의 경우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3천 만 원 수준이고 그 다음 임금근로자, 미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순이다.

이상의 통계를 종합해 볼 때, 미취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이면서 고연령자이고 돌봐야 할 가구원이 있으며 건강상태는 나쁜 실태라고 할 수 있다. 가구소득 측면에서 보면 미취업자가 근로소득은 없는 반면 금융자산, 부동산소득, 사회보장급여 등 일정한 고정수입이 있고 그와 유사한 수준의 사적이전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가계지출이 상대적으로 작는데 저축을 포함해서 대략 175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미취업자의 속성은 평균수준 차이를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이며, 그에 비해 취업자는 이질적인 속성을 가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어 엄밀한 분석이 없다면 쉽게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 3.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분석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적 속성, 건강상태, 시장 특성,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구자산 및 부채, 일자리 직업정보를 사용한 모형 1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한 이항로짓 모형으로 추정한 것이다.<sup>13)</sup> 한편 모형 2는 미취업자를 참조집단으로 한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 결과이다.

여성 더미변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수에서 예상대로 유의한 추정 결과가 나타난다. 가구주일수록 취업자가 될 확률이 높고 고연령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진다. 한편 영아기 가구원이 있는 경우 취업확률이 낮아진다. 무배우 여성이나 남성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는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취업활동에 나서기 어렵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 달리 여성 더미변수가 정(+)의 추정계수 값을 갖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구 모형에는 무배우 여성과 무배우 남성에 대한 더미변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유배우 여성과 무배우 여성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무배우 여성의 경우 여성 더미변수와 무배우 여성 더미변수를 같이 고려할 때 부(-)의 값을 갖는다. 한편 유배우 여성의 경우 여성 더미변수만 고려하게 되며 정(+)의 값을 갖게 된다. 일견 기존의 연구, 특히 성지미·안주엽(2006)의 분석 결과와 배치되는 결과로 보이나,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의 속성상 실제 여성의 경우 취업확률에 부(-)의 효과를 갖게 된다.<sup>14)</sup>

13)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성지미·안주엽(2006)과 같이 가설검증을 위한 별도의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향후 정책 대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14) 이를 파악하기 위해 모형 1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평균값을 살펴보자. 우선 가구주 더미변수는 0.52, 연령은 61.8세, 교육연수는 7.85년, 영유아기 가구원 더미변수는 0.04, 학령기 가구원 더미변수는 0.05이다. 이에 대해 여성의 평균치는 각각 0.27, 61.8세, 6.49년, 0.04, 0.06이다. 따라서 이 여성의 평균치를 모형 1의 추정계수 각각에 연계하여 추정값을 구하면 -0.086이라는 부(-)의 값이 나타난다. 한편 남성의 평균치를 대입하면 0.668로 정(+)의 값이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 더미변수가 정(+)의 값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만큼 다른 여타 통제변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배우자 더미변수를 제거했을 때 여성 더미변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면 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특별히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심리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취업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체적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매우 나쁜 상태에서 유의적인 부(-)의 효과가 나타나고, 심리적 건강상태의 경우 매우 나쁜 경우에만 부(-)의 효과가 나타난다. 추정계수의 크기를 보더라도 육체적 건강상태가 심리적 건강상태보다 취업 여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육체적인 건강상태는 취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심리적인 건강상태는 취업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질환, 장애 여부는 취업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실업률 변수를 보면 예상대로 실업률이 높을수록 취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노동시장의 상황이 중고령자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다른 변수들에 비해 미미한 크기이지만 유의적인 부(-)의 값을 보여준다. 이는 본인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구소득의 구성 내용을 세분화한 변수는 예상대로 각종 소득원들의 크기가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고 있다. 한편 예상과 달리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개인연금소득은 정(+)의 값을 갖는데,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그 크기도 미미하고 개인연금은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수를 취업결정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sup>15)</sup> 가구지출변수는 예상한 대로 가구소득과 정반대의 부호로 나타난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을 낮추지만, 가구지출은 많아질수록 취업확률을 높이게 된다.

모형 2의 다항로지트 모형 추정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의 추정계수가 부(-)의 값을 갖지만, 배우자 유무가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포함하였다. 익명의 심사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료의 특성을 살펴 향후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5) 개인연금소득의 경우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고 그 수준도 전체 평균 0.29만 원(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어렵다. 일견 유사한 취업형태로 볼 수 있으나, 규모와 상관없이 경영활동을 책임지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활동의 범위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속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여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결과가 <표 4>의 추정결과이다. 여기서 정확한 확률의 차이는 승산비(odds ratio)로 계산된다.<sup>16)</sup> 먼저 가구주 더미변수의 경우 예상대로 가구주일수록 자영업에 종사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임금근로자이고 무급가족종사자에서는 오히려 확률이 낮아진다. 여성 더미변수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의 확률을 높여주지만 자영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령은 모두 부(-)의 효과를 갖지만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순이고, 교육연수는 반대로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순이다. 영아기 가구원의 존재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확률을 낮추는 데만 영향을 미치고, 학령기 가구원의 존재는 임금근로자에게 정(+)의 효과, 무급가족종사자에게는 부(-)의 효과가 나타난다. 실업률은 모두 부(-)의 효과가 있지만, 그 크기는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임금근로자 순이다.

건강상태의 경우 육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동일하게 각각의 취업형태가 되는 확률을 낮추지만, 심리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 자영업자의 추정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임금근로자이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앞서 취업-미취업의 이항로짓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육체적 조건이 취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반면, 심리적인 상태가 임금근로나 자영업에의 취업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유의하지 않지만 자영업자에서는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이고 반대로 무급가족종사자에서는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나 배우자가 취업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같은 취업자이더라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좀더 확실하게 각

16) 승산비는 참조 집단과 비교하여 해당 집단에 있어 해당 변수의 odds가 기준값의 odds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 3〉 로짓모형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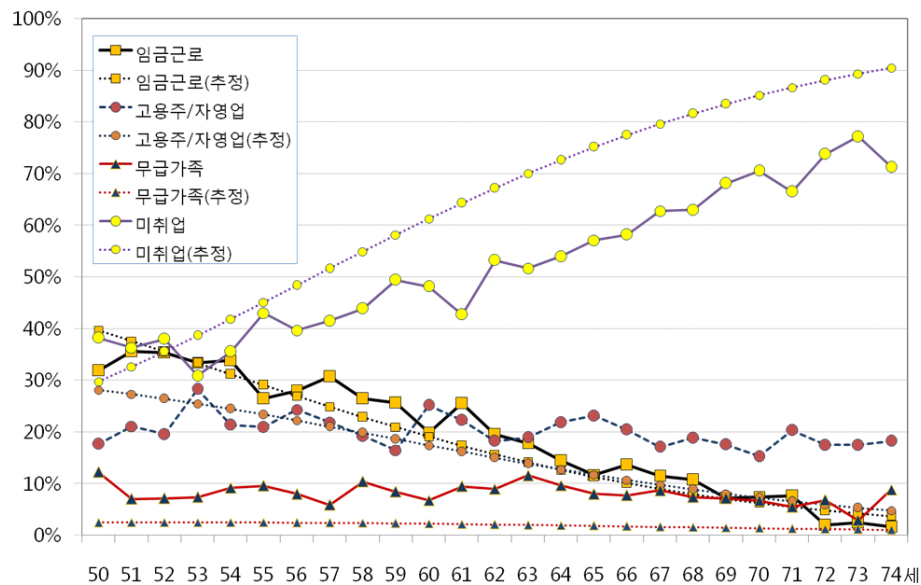
변수명	모형 1			모형 2					
				입금근로			비입금근로		
	b	S.E.	유의도	b	S.E.	유의도	b	S.E.	유의도
상수	6.613	0.654	***	5.772	0.752	***	6.172	0.774	***
REL	3.179	0.151	***	3.497	0.185	***	2.878	0.176	***
FEMALE	0.408	0.158	***	0.583	0.184	***	0.229	0.182	
AGE	-0.129	0.009	***	-0.137	0.010	***	-0.123	0.010	***
SCH	-0.044	0.012	***	-0.017	0.014		-0.071	0.014	***
CHILD4	-0.451	0.238	*	-0.336	0.284		-0.602	0.300	**
CHILD9	0.429	0.220	*	0.746	0.257	***	0.078	0.280	
NSPOF	-1.389	0.174	***	-1.330	0.204	***	-1.540	0.213	***
NSPOM	-0.774	0.207	***	-0.631	0.232	***	-1.034	0.266	***
HEALTHG	-0.006	0.125		0.122	0.141		-0.133	0.144	
HEALTHB	-0.369	0.121	***	-0.326	0.140	**	-0.407	0.142	***
HEALTHW	-1.368	0.188	***	-1.698	0.251	***	-1.149	0.220	***
PHEALTHG	0.210	0.110	*	0.115	0.127		0.298	0.129	**
PHEALTHB	-0.189	0.120		-0.204	0.140		-0.175	0.143	
PHEALTHW	-0.083	0.230		-0.064	0.289		-0.102	0.277	
DISABILITY	-0.223	0.097	**	-0.322	0.112	***	-0.118	0.114	
URATE	-0.161	0.042	***	-0.021	0.049		-0.314	0.051	***
INCSPO	0.000	0.001		0.001	0.001		0.000	0.001	
INCSAVS	-0.017	0.004	***	-0.017	0.005	***	-0.018	0.005	***
INCRENT	-0.005	0.001	***	-0.006	0.001	***	-0.004	0.001	***
INCSOCI	-0.012	0.002	***	-0.012	0.002	***	-0.012	0.002	***
INCRETA	-0.001	0.004		-0.005	0.007		0.002	0.004	
INCTRAN	-0.013	0.001	***	-0.014	0.002	***	-0.013	0.002	***
INCETC	-0.002	0.001	***	-0.001	0.001		-0.003	0.001	***
EXPENS	0.004	0.001	***	0.002	0.001	***	0.005	0.001	***
EXPTRAN	0.002	0.001		0.001	0.002		0.003	0.002	
SAVINGS	0.001	0.001	*	0.001	0.001		0.001	0.001	
ASSETFIN	-0.00002	0.00001		-0.00003	0.00002	*	-0.00001	0.00002	
ASSETETC	0.00000	0.00003		-0.00003	0.00004		0.00003	0.00003	
DEBTFIN	0.00000	0.00001		-0.00001	0.00001		0.00001	0.00001	*
OCC0	-0.141	0.208		-0.098	0.236		-0.202	0.241	
OCC1	-0.013	0.348		0.076	0.395		-0.125	0.425	
OCC2	-0.164	0.289		-0.300	0.332		-0.025	0.322	
OCC4	-0.009	0.222		-0.012	0.256		-0.005	0.259	
OCC5	0.245	0.194		0.037	0.226		0.415	0.220	*
OCC6	0.969	0.209	***	0.855	0.241	***	0.977	0.234	***
OCC7	0.098	0.196		0.193	0.220		-0.003	0.224	
OCC8	0.024	0.239		-0.375	0.279		0.326	0.261	
OCC9	0.078	0.180		0.368	0.205	*	-0.340	0.213	
N	4,312			4,312					
로그우도	-1840.5537			-3043.7686					
LR $\chi^2$	2244.38			2494.31					
Pseudo R <sup>2</sup>	0.3788			0.2906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참조집단은 미취업자이며, 일자리(직업)변수의 기준 범주는 occ3(사무직)임.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취업형태로의 확률 변화를 보기 위해 취업결정요인의 한계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표 5>인데, 이를 보더라도 동일한 변수들이 서로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취업 여부만을 가지고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4>의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연령별 취업실태를 예측한 결과를 실제 취업실태와 비교한 것이 [그림 2]이다. 우선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취업비율이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거의 실제와 같이 추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미취업자는 과대 추정(over estimate)되었고,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과소 추정(under estimate)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표 4>에서 제시된 추정모형이 주로 취업자, 그 중에서도 임금근로자의 취업결정요인에 치우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가령 자영업자는 인적 속성, 건강상태, 가구소득보다는 사업 기회와 사업 활동의 필요성 등 일반적인 취업결정요인과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배우자나 다른 가구원이 자영업자일 경우, 즉 가구원의 취업형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2] 연령별 취업실태와 추정 결과





〈표 4〉 다항로짓 추정 결과

변수명	임금근로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종사			
	b	S.E.	유의도	exp(b)	b	S.E.	유의도	exp(b)	b	S.E.	유의도	exp(b)
상수	6.830	0.609	***		6.578	0.624	***		5.587	0.864	***	
REL	3.540	0.158	***	34.465	3.638	0.163	***	38.023	-0.745	0.260	***	0.475
FEMALE	0.356	0.154	**	1.428	-0.247	0.157		0.781	1.513	0.252	***	4.540
AGE	-0.145	0.008	***	0.865	-0.120	0.008	***	0.887	-0.082	0.012	***	0.922
SCH	-0.040	0.011	***	0.961	-0.111	0.011	***	0.895	-0.158	0.016	***	0.854
CHILD4	-0.076	0.248		0.927	-0.191	0.260		0.827	-1.276	0.451	***	0.279
CHILD9	0.636	0.224	***	1.888	0.202	0.234		1.223	-0.804	0.347	**	0.448
NSPOF	-1.246	0.171	***	0.288	-1.047	0.171	***	0.351	-2.240	0.285	***	0.106
NSPOM	-0.741	0.219	***	0.477	-1.453	0.248	***	0.234	-1.209	1.043		0.299
HEALTHG	0.028	0.121		1.028	-0.142	0.127		0.868	-0.273	0.170		0.761
HEALTHB	-0.223	0.121	*	0.800	-0.212	0.122	*	0.809	-0.233	0.155		0.792
HEALTHW	-1.485	0.219	***	0.227	-1.032	0.186	***	0.356	-0.768	0.222	***	0.464
PHEALTHG	0.196	0.109	*	1.217	0.422	0.111	***	1.525	0.064	0.142		1.066
PHEALTHB	-0.193	0.122		0.824	-0.071	0.120		0.931	-0.072	0.148		0.931
PHEALTHW	-0.254	0.262		0.776	-0.084	0.228		0.919	-0.578	0.311	*	0.561
DISABILITY	-0.370	0.097	***	0.690	-0.310	0.096	***	0.733	-0.446	0.125	***	0.640
URATE	-0.088	0.042	**	0.916	-0.529	0.042	***	0.589	-0.883	0.061	***	0.414
INCSP0	-0.001	0.001		0.999	-0.003	0.001	***	0.997	0.003	0.001	***	1.003
INCSAVS	-0.014	0.004	***	0.986	-0.024	0.005	***	0.977	-0.012	0.009		0.989
INCRENT	-0.004	0.001	***	0.996	-0.002	0.001	***	0.998	-0.004	0.001	***	0.996
INC SOCI	-0.012	0.002	***	0.988	-0.014	0.002	***	0.986	-0.008	0.006		0.992
INCRETA	-0.004	0.005		0.996	0.000	0.004		1.000	-0.018	0.022		0.982
INCTRAN	-0.013	0.001	***	0.987	-0.012	0.001	***	0.988	-0.017	0.003	***	0.983
INCETC	-0.001	0.000		0.999	-0.002	0.001	***	0.998	-0.007	0.003	**	0.993
EXPENS	0.002	0.001	***	1.002	0.004	0.000	***	1.004	0.000	0.001		1.000
EXPTRAN	0.003	0.001	***	1.003	0.005	0.001	***	1.005	0.002	0.002		1.002
SAVINGS	0.002	0.001	**	1.002	0.002	0.001	**	1.002	0.001	0.002		1.001
ASSETFIN	-0.000	0.000	*	1.000	-0.000	0.000	*	1.000	-0.000	0.000		1.000
ASSETETC	-0.000	0.000		1.000	0.000	0.000		1.000	-0.000	0.000		1.000
DEBTFIN	-0.000	0.000		1.000	0.000	0.000	**	1.000	0.000	0.000	*	1.000
N	6,880											
로그우도	-5374.8567											
LR $\chi^2$	5598.18											
Pseudo R <sup>2</sup>	0.3424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에서 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참조집단은 미취업자임. exp(b)는 승산비(odds ratio)를 의미함. 지면 관계상 일자리(직업)정보는 보고하지 않음.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표 5〉 취업결정요인의 한계효과

변수명		임금근로		고용주/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dy/dx	유의도	dy/dx	유의도	dy/dx	유의도
REL	0 → 1	0.325	***	0.328	***	-0.035	***
FEMALE	0 → 1	0.048	***	-0.046	**	0.030	***
AGE	1세 증가시	-0.016	***	-0.012	***	-0.001	***
SCH	1년 증가시	-0.002		-0.013	***	-0.003	***
CHILD4	0 → 1	-0.003		-0.019		-0.015	***
CHILD9	0 → 1	-0.098	**	-0.008		-0.013	***
NSPOF	0 → 1	-0.111	***	-0.088	***	-0.024	***
NSPOM	0 → 1	-0.063	***	-0.110	***	-0.013	
HEALTHG	0 → 1	0.008		-0.018		-0.005	
HEALTHB	0 → 1	-0.024	*	-0.021		-0.003	
HEALTHW	0 → 1	-0.127	***	-0.085	***	-0.008	**
PHEALTHG	0 → 1	0.016		0.051	***	-0.007	
PHEALTHB	0 → 1	-0.028		-0.004		-0.001	
PHEALTHW	0 → 1	-0.023		-0.004		-0.009	**
DISABILITY	0 → 1	-0.040	***	-0.029	***	-0.007	***
URATE	1% 증가시	0.004		-0.063	***	-0.016	***
INCSPO	1만원 증가시	-0.000		-0.000	***	0.000	***
INCSAVS	1만원 증가시	-0.001	**	-0.003	***	-0.000	
INCRENT	1만원 증가시	-0.001	***	-0.000		-0.000	**
INCSOCI	1만원 증가시	-0.001	***	-0.001	***	-0.000	
INCRETA	1만원 증가시	-0.000		0.000		-0.000	
INCTRAN	1만원 증가시	-0.001	***	-0.001	***	-0.000	***
INCETC	1만원 증가시	-0.000		-0.000	**	-0.000	**
EXPENS	1만원 증가시	0.000	***	0.000	***	-0.000	
EXPTRAN	1만원 증가시	0.000	**	0.000	***	0.000	
SAVINGS	1만원 증가시	0.000	**	0.000	**	-0.000	
ASSETFIN	1만원 증가시	-0.000	*	-0.000		-0.000	
ASSETETC	1만원 증가시	-0.000		0.000		-0.000	
DEBTFIN	1만원 증가시	-0.000	*	0.000	**	0.000	*

주: dy/dx는 각 변수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계효과를 추정한 것으로 한 단위 증가시  
 확률의 변화를 의미함(더미변수는 0에서 1로 변할 때를 의미).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1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 IV. 결 론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노후보장패널 1차년도(2005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이어 주요 취업결정요인으로서 가구주, 성별, 연령, 학력(교육연수), 영아기 및 학령기의 가구원 존재 등 중고령자의 인적 속성을 포함하여 육체적·심리적 건강상태(건강자본), 지역실업률과 같은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가구소득, 가구지출, 가구자산 및 부채와 같이 취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변수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모형과 취업형태에 대한 다항로짓 모형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구주일 때 취업확률이 낮아지며, 여성일 때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더미변수의 경우 기존 연구나 통상의 인식과 달리 취업확률에 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여타 변수들과 같이 보았을 때 성별 자체의 의미는 그다지 강한 효과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돌봐야 할 영아기 가구원이 있는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취업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는데, 육체적 건강상태는 취업활동의 제약요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심리적 건강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우 취업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보여 취업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이나 개인연금소득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구지출변수를 추가하였는데, 예상대로 가구지출이 많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가구소득뿐 아니라 가구지출도 중고령자 취업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기존의 연구가 주로 취업-미취업의 기준에 따라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

인 분석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 결과 이질적인 속성을 가진 취업자 집단, 즉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미취업자를 참조집단으로 한 다항로짓 모형을 추정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개별 변수들의 효과는 추정계수의 부호나 크기에 있어 취업 여부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 결과와 유사하지만, 취업자 집단별로 추정계수의 방향이나 크기가 서로 달라 기존의 연구처럼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통합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가 주로 취업의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취업의 양과 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의 내용에는 중고령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변수가 없어 체계화된 노동공급이론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한편 이상의 결과들은 취업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용주/자영업자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다가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자영업 노동시장이 노후생활 보장 및 유지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가 중고령자 취업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본 연구는 실증분석이나 해석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가구소득이나 지출, 자산 및 부채의 경우 응답 거절, 모름 또는 무응답한 경우 분석의 편의를 위해 0의 값을 부여하였는데,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실증분석에서 과대 또는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무응답 대체자료(imputed data)를 활용하여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가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sup>17)</sup>

첫째, 노동공급이론에 의거,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둘째,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는 학력변수에 있어 중퇴 또는 졸업을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고 초대졸과 대졸을 동일한 범주로 간주하고 있어 정확한 교육연수를 파악하기 어렵다.<sup>18)</sup> 또한 인적자본 특성의 하나

17) 주로 설문 내용을 좀더 보강하는 내용이며, 그 준거로서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을 참고하였다.

로서 자격증 보유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면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중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배우자 여부나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국민노후보장패널의 경우 결혼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혼인 중고령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향후 조사에서는 결혼 유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같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시원 · 이용하 · 강성호 · 김정은 · 정일영. 『제1차(2005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연구원, 2006.
- 박경숙.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 (1) (2003): 103~140.
- \_\_\_\_\_. 「남녀 고령층의 취업률과 은퇴동학」. 『제7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성지미 · 안주엽.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6 (1) (2006): 39~74.
- 이성우 · 민성희 · 박지영 · 윤성도. 『로짓 · 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2005.
- 장지연.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한국사회학』 37 (1) (2003): 95~121.
- 장지연 · 신현구. 「중고령자 취업결정요인의 국가간 비교: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 『중고령자 노동시장 국제비교연구』. pp.43~84. 한국노동연구원, 2008.
- Long, J.S., & J. Freese.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Dependent Variables Using Stata*. 2nd ed., Stata Press, 2006.

18) 다소 설문 내용이 복잡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차후에는 좀더 정확한 인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퇴와 졸업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실제 노동시장(특히 기업)에서는 졸업 여부가 학력인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The Determinants of the Older's Decision to Work :  
Focusing on 1st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ongWook Eom

This study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the older's decisions to work or not focusing on the new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2005) which was released at 2008. Our sample consists of 7,003 old persons who were aged 50 or more but less than 75. We found a kind of determinant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o their decisions such as age, education, gender and the marital status, health status, the unemployment rate in the residential area, using the binomial and multinomial logit model. Their income, expenditure, financial assets and debts also significantly affect their labor force participation. Although this results show what is the determinant of decision to work or not, we could not find the determinants of decision to do as the employed or as the self-employed if old persons work. It reveals the next direction to study about the old workers, which makes our knowledge more helpful to design the policy for the older's healthy life.

Keywords : the older,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probability of decision to work, binomial and multinomial logit model.